



바이오

성장하는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지앤지셀 '선점' 노린다

2023.08.25. 오전 6:50

↳stock

벤처중기부

과기부 부설 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MOU

연구소 산하 반려동물식약개발단과 협력

임상 2상 돌입, 상용화 목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약품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 덕에 동물약품 시장 성장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지앤지셀이 신약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부설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앤지셀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반려동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20년 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인증을 받은 뒤 2021년말부터 반려동물 신약개발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을 꾸려 동물의약품 소재발굴과 효능평가를 통해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40억원을 출연한 사업입니다.

지앤지셀은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외소포를 활용해 인간뿐 아니라 반려동물 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창업된 회사로 각각 2020년과 2022년 투자 유치 받았다. 프리A 라운드까지 마친 초기 기업이죠.

지앤지셀이 개발하는 세포외소포는 줄기세포에서 생성돼 외부로 방출되는 소낭체입니다. 주로 '엑소좀(exosom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면역조절과 항염증, 항면역, 노화와 관련한 치료제 개발에 주로 활용됩니다.

지앤지셀은 반려견 줄기세포 세포은행 구축, 자체 개량 개발한 줄기세포 대량배양, 세포외소포 반자동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견 알레르기 피부염, 근감소증 등 질환의 예방, 억제, 치료를 목표로 제품 생산 공정을 개발 중입니다.

벤처캐피탈 중에선 인라이트벤처스의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5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주도형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앤지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과 함께 세포외소포 소재검증 협력, 유효성 평가 연구, 임상연구, 실용화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세포외소포치료제 개발, 상업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앤지셀 관계자는 "반려동물신약개발사업단과 함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치료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현 기자

해당 콘텐츠는 프리미엄 구독자 공개(유료) 콘텐츠로 무단 캡처 및 불법 공유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중기부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동물의약품 #지앤지셀 #줄기세포 #엑소좀 #인라이트벤처스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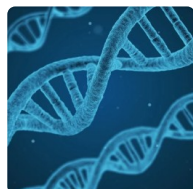
해당 채널은 구매자에게만 댓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이오 카테고리



소외됐던 바이오 섹터, 투자 봄날은 올까요

2023.08.28. 1